

우리나라의 情報活動의 現況과 展望

KORSTIC 業務部長 千 熙 星

- 一. 一般的인 情勢
- 二. 우리나라의 現況
 - (1) 學會 및 圖書館
 - (2)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
- 三. 우리나라의 情報活動의 問題點
- 四. 結論

一. 一般的인 情勢

科學技術의 發展이 科學技術情報(以下“情報”라고 함)의 循環過程(發表와 吸收)에서 形成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이런 循環過程의 形態에는 單純한 意見交換 即 會話, 討論會 및 國際會議 등과 科學技術文獻에 依한 方法이 있다. 前者는 昔 오래 前부터 行하여 온 方法이다. 그러나 最近의 急速하고도 驚異的인 科學技術의 發展은 莫大한 量의 情報를 生産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科學者 및 技術者들이 時時刻刻으로 產出되는 情報속에서 必要한 情報를 容易하게 찾아 볼 수 있기에 極히 어려운 狀態가 되었다. 이런 理由에서 世界各國은 이의 合理的인 處理를 爲한 對策으로서 「情報의 蒐集, 處理 및 提供」까지를 集中的 또는 總合調整的인 機關設立에 注力하고 있다.

이와같은 現況을 國家別로 概觀하면 美國은 宇宙航空局(NASA), 原子力委員會(AEC) 및 國立科學財團(NSF) 등을 中心으로, 英國은 科學技術研究廳(DSIR)을 中心으로, 法國은 國立科學研究中心(CNRS), 西獨은 Gmelin 研究所, 印度는 國立科學文獻센터(INSDOC), 日本은 日本科學技術情報센터(JICST), Pakistan은 國立科學文獻센터(PANSDOC) 및 蘇聯은 國立科學文獻情報센터(VINITI)를 中心으로 集中的인 또는 總合調整的인 科學技術情報活動을 遂行하면서 그나라의 科學技術振興의 基礎로 하고 있는 實情이다. 東南亞一帶의 後進國家들의 境遇도(Thailand, Indonesia, Philippine, 自由中國等) UNESCO로 부터 派遣된 文獻專門家들이 數年間に 걸쳐 「情報센터」의 樹立計劃을 推進中이며 政府에서는 인식함이 없이 充分한 豫算을 投入하면서 그 基礎作業에 萬全을 期하고 있다.

國際적으로는 歐洲共同市場(EEC), 國際學術團體聯合(ICSU), 國際基礎·應用化學聯合(IUPAC), UNESCO 및 國際標準化機構(ISO) 등의 國際機構에서도 情報活動自體를 重大한 問題로 取扱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情報活動이 全世界적으로 重要한 課題로 擡頭되고 있음에 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近代的인 意味에서의 情報活動이 1962年 以前까지는 殆無한 狀態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第一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聯關計劃으로 科學技術振興5個年計劃이 積極적으로 推進되어 今에 따라 情報活動의 重要性이 認識되어 마침내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가 1962年 1月 1日에 創設됨으로서 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情報活動이 始作되게 되었다.

또한 情報活動 그 自體도 重點이 過去의 「Documentation 技術」에서 「情報處理技術」으로 移行되면서 情報理論, 論理學 및 言語學 등을 驅使하여 電子技術을 活用한 情報處理技術에 關한 研究 및 開發이 急速度로 進行되고 있다.

二. 우리나라의 現況

우리나라 情報活動의 現況을 보다 具體적으로 把握하는 데는 學會 및 圖書館의 活動과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를 中心으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以下 簡單하게 論하여 보기로 한다.

1. 學會 및 圖書館

學會 및 圖書館이 情報活動의 一翼을 擔當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實情은 物理學會 및 化學學會를 비롯하여 約 70餘個의 學會가 서울을 中心으로 散在하고 있으나 이들의 活動을 보면 過去보다는 漸次的으로 그 活動이 活潑하여 지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餘러가지 與件 때문에 充分한 機能을 發揮치 못하고 있는 形便이며, 單只 몇個의 學會만이 機關誌를 刊行하면서 研究發表會나 學術大會 등을 開催하고 있을 程度이다.

圖書館의 境遇도 國公立 및 大學校 등의 約 90餘個의 圖書館이 情報活動에 關해서는 거의 無知 또는 無關心한 狀態에서 過去의 固陋한 範圍를 脫皮 못하고 그 活

動自體上沈滯狀態에 들어 있다고 하겠다.

2.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

前述한바와 같이 近代的인 意味에서의 情報活動의 中樞的 機關인 KORSTIC이 우리나라의 科學技術振興의 그 基礎事業으로서 1962年 1月 11日에 設立되어 9月 27日이 滿 1,000日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KORSTIC이 現在와 같은 規模로 擴張되고 우리나라의 科學者 및 技術者들이 없어서는 안될 重要한 機關이라고 認識되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荆棘을 克服해야만 하였다. 이런 逆境속에서도 KORSTIC이 이제는 그래도 어느 程度 安定한 狀態에서 情報提供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極히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KORSTIC의 2年 數個月의 業績을 보면 다음과 같다.

KORSTIC의 業務는 情報蒐集處理業務와 情報提供業務로 大別할 수 있다. 情報蒐集이라 함은 主要한 情報源이 되는 外國의 科學技術系의 定期 또는 不定期刊行物, 特許, 政府刊行物 및 Report等 우리나라의 科學技術界에 꼭 必要한 文獻(第一次情報)을 迅速·正確하게 蒐集함을 말하며 處理業務라 함은 蒐集된 第一次情報中에서 有效한 論文 및 特許란을 選擇, 選擇한 論文 및 特許의 論題 및 件名의 翻譯 및 分類를 하는 業務를 말한다. 提供業務는 處理業務에서 作成된것을 出版하고 文獻複寫, 文獻翻譯과 主題調査等을 依頼한 사람에게 提供하는 業務이다.

1) 情報蒐集·處理業務

i) 情報蒐集

1,300種의 外國의 科學技術에 關한 定期·不定期刊行物, 外國特許, 研究報告書 및 政府刊行物을 5~10年分의 Book Volume을 蒐集하였고 앞으로는 種數를 年次的으로 增加하면서 繼續 蒐集할 計劃이며 蒐集한 內容은 表(一)과 같다.

表(一) 情報蒐集內容

가) 理學	455種	마) 原子力	34種
나) 工學	370種	바) 特許	10種
다) 農學	196種	사) 其他	125種
라) 醫學	125種		

ii) 情報處理

蒐集된 第一次情報中에서 處理發表된 件數는 表(二)와 같다.

表(二)

文獻	年 度	'63	'64(8月現在)	總 計
	件 數	40,979	27,964	68,943

特許	年 度	'63	'64(8月現在)	總 計
	件 數	18,514件	22,858件	41,372件

2) 情報提供業務

情報提供業務에는 刊行物에 依한것과 需要者의 依頼에 依한 受託業務의 두가지가 있다.

i) 刊行物

(가) 科學技術文獻速報 I編 및 II編

情報處理된 情報를 收錄記載한 刊行物로서 I編 및 II編이 月刊으로 出版되는데 出版 및 提供內容은 表(三)과 같다.

表(三) 出版 및 提供

年 度	'62/12月~'64/8
一, 二編總刊行部數	16,600
提 供 部 數	9,075

(나) 外國特許速報

外國特許速報亦是 美·日地域의 特許가 情報處理된 情報를 收錄記載한 月刊速報로서 出版 및 提供은 表(四)와 같다.

表(四) 出版·提供

年 從	'63~'64/8
發 刊 總 部 數	4,100
提 供 部 數	2,310

(다) 其他

情報技術의 解說 및 KORSTIC의 活動現況等을 紹介하기 爲한 隔月刊 KORSTIC誌 및 不定期 所藏外國科學技術 Journal目錄의 出版 및 提供은 表(五)와 같다.

表(五)

種 別	KORSTIC誌	所藏外國 Journal List
年 度	1963~64(8月現在)	1964(8月現在)
總發行部數	4,100	2,000
總提供部數	2,131	550

ii) 受託業務

受託業務는 文獻複寫, 文獻翻譯 및 調査業務로 區分된다.

(가) 文獻複寫

1963年~1964年 8月 30日 現在의 文獻複寫提供은 63年度 1,070件, 64年度 8月까지에 2,483件 總 3,553件으로 그 內容은 表(六-I), (六-II), (六-III)과 같다.

表(六一I)
年度別情報提供

年 度	提 供 件 數
1960~1964	2,236
1950~1959	972
1940~1949	136
1900~1937	145
1900年以前	64

表(六一II)
分野別情報提供

分 野	提 供 件 數
純粹科學	402
工 學	2,261
農 學	502
醫 藥 學	251
其 他	137

表(六一III)

利用處別	利用個處數	提 供 件 數
研 究 所	34	165
企 業 體	231	2,202
醫學機關	2	2
學 校	140	656
官 公 署	17	487
其 他	10	41

(나) 文獻翻譯

情報活動의 極히 重要한 問題가 되어 있는 文獻翻譯은 아직 널리 普及이 되어 있지 않은 狀態이나 1964年初부터 着手하기 始作하여 5件에 達하고 있다.

(다) 調査

調査業務는 民間企業의 活潑化와 研究에의 投資가 增加함에 따라 急增하는 傾向이 濃厚하다. 우리나라의 境遇도 亦是 廣範圍하게 普及되어 있는 狀態는 아니나 1964年度의 總件數가 45件에 達하고 있으며 앞으로 普及됨에 따라 相當한 比重을 占有할것으로 豫測된다.

3) 其他

情報活動은 그 性格上 國內外的 關係機關과 密接한 關係維持가 絶對로 必要하다.

i) 文獻專門家

(가) UNESCO로부터 佛蘭西 國立科學研究센터 副所長 J. Garrido 博士가 '62年 7月 25日~8月 25日까지 KORSTIC의 長期計劃樹立 및 技術指導를 爲하여 來韓한바 있었다.

(나) 64年 7月 6日에 Walter T. Lorch 博士가 亦是 UNESCO로부터 派遣되어 KORSTIC의 諸般 問題의 指導를 爲하여 一年間의 滯韓中에 있다.

ii) 外國機關과의 紐帶強化

KORSTIC은 日本의 JICST, 佛蘭西의 CNRS, 印度의 INSDOC, 美國의 John Crerar Library, 日本國會

圖書館 및 美國農林省 등과 緊密한 協助의 基礎를 確立하고 있다.

iii) 海外派遣

UNKRA資金 24,000弗의 援助에 依하여 KORSTIC에서는 佛蘭西, 美國, India 및 日本 等地에 職員 6名을 6個月 期間으로 65年度 初부터 派遣訓練시킬 豫定이다.

三. 우리나라에 있어서 情報活動의 問題

以上 情報活動에 關한 國內外的 現況을 單純하게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情報活動의 強化에 對하여는 「情報處理技術」의 專門的인 問題에 關해서가 아니고 政策的인 見地에서의 問題點을 愚見이 나마 記述코져 한다.

經濟成長이 切實히 要求되는 後進國일수록 科學技術에 關하여 等閑 또는 無關心한 狀態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時急히 科學技術開發의 基本課題인 情報活動을 育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問題들이 解決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 情報活動의 強化

情報量의 飛躍的인 增加와 科學技術分野의 細分化에 따라 情報의 多面的 利用의 必要性이 增大하고 있기 때문에 研究能率의 向上과 技術의 普及을 積極化하기 爲하여 情報活動을 總合的으로 더욱 強力하게 組織化할 必要가 있다.

이러기 爲해서 KORSTIC의 強化 育成이 무엇보다도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

(2) 情報業務의 改善強化

i) 論文의 誌上發表의 強化

ii) KORSTIC의 第一次情報蒐集의 增大(5,000種까지)

iii) 總合目錄作成

iv) 情報調査의 利用擴張

v) 學術會議 및 講演會 등을 통한 情報交流의 擴張

(3) 情報組織의 確立

i) 未備한 狀態의 大學 및 研究機關의 情報活動에 關한 認識 및 그 活動의 擴充強化와 近代的인 組織化

ii) 企業體內的 情報組織은 社內 情報의 出版強化, 文獻購入을 漸次的으로 遞減하면서 情報分析을 強化하고 最大限으로 外部의 專門文獻情報機關, 即 KORSTIC을 利用하는데 重點을 두고 KORSTIC의 育成 強化에 積極的인 協力を 할것.

iii) 學會等의 有用한 情報活動에 關해서 政府의 援助가 緊要.

(iv) 各種圖書館은 情報活動의 中樞的 機關인 KORSTIC과 最大限으로 緊密한 從的인 關係維持에 最高의 努力을 盡할 것.

(v) 特許局은 外國特許資料蒐集의 範圍 및 部數의 擴張, 速報性 資料入手의 積極化 및 特許檢索에 關한 問題에 關心을 두고 KORSTIC의 情報活動에 進歩的인 協助가 있도록 努力할 것.

(4) 情報專門家의 養成
 情報活動은 比較的 새로운 事業이므로 아직 이에 關한 優秀한 人材가 거의 없다. 故로 이를 時急히 養成하는 것이 情報活動振興에 先務이다. 此의 方法으로서 各大學校가 情報專門家의 養成에 責任을 負야 할 것이며 情報專門家의 待遇를 研究者 및 技術者와 같이 優待할 것.

(5) 研究活動의 普及強化
 政府는 情報活動의 普及에 公共 Media의 利用에 積極的인 後援을 해야 할 것이며 科學技術普及의 가장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는 各 日刊新聞과 相當한 比重을 占하는 Radio는 보다 指導的인 立場에서 此의 普及에 最大의 便宜를 提供할 것.

(6) 國際機構加入
 1925年에 創設되어 지금까지 많은 業績을 가지면서 發展한 國際機關에 加入하여 國際的인 情報交流의 促進과 國際舞臺進出에 遺憾이 없도록 할 것.

(7) 綜合센터로서의 KORSTIC育成

情報活動에 關한 綜合的인 情報센터의 構想에 있어서 各具特色 있는 專門的인 센터와 Data센터를 設立하고 現在의 KORSTIC을 育成 強化하여 이들을 強力하게 綜合할 수 있도록 發展시키면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政策의 基礎를 確立할 것.

四. 結 論

近代的인 意味에서의 情報活動이 우리나라에서 始作된 것은 KORSTIC이 設立된 以後라는 것은 前述한바 있다. 約 2年間의 KORSTIC의 提供業務는 우리나라의 研究界 및 產業界에 미친바 그 效果가 大端하였다. 또한 여기에서는 「턱쉬」를 하지 않았으나 上記의 提供業務를 通하여 正確한 우리나라의 産業發展의 動向 및 産業構造의 變遷에 이르기까지도 分析할 수 있는 資料를 얻을 수 있다는 確信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情報活動이 얼마나 重要한가는 여기에 再論을 不要하며 指摘한바 있는 問題點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可笑로운 問題들인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들이 갖는 힘을 再認識하고 政策樹立者는 勿論 研究界 및 產業界 등의 諸關係機關은 情報活動에 最大의 關心과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나라도 비로서 安定된 基盤위에서 經濟成長을 바랄 수 있는 資格을 갖게 된다는 것을 附記하여 둔다.

(Co. 14에서 繼續)
 生產企業體가 世界의 새로운 情報를 蒐集하고 뿐만 아니라 그 情報의 流通組織을 社內에 確立하여 보다 具體的인 目的으로서 움직이려 할 때 參考가 되었으면 하는 願望에서 이 글을 썼다. 그때야 비로소 韓國科學技術 情報센터가 情報活動의 中樞的 機關으로서 機能을 十分 發揮하게 되어 生產企業體에 充分한 Service를 提供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Data나 情報活動의 組織은 어디까지나 한 企業體內의 小規模 活動을

위한 것이고 國家的 水準의 中樞的 情報센터에 對한것은 아님을 附記하여 둔다.

故로 今年에는 우리나라에도 法律面에서 辯護士, 會計面에서 經理士와 같은 役割을 擔當하는 技術士에 對한 法律 即 技術士法의 制定을 보게 되었다. 이는 韓國 科學技術界에는 祝福할 일이고 앞으로의 適切한 運營과 發展이 있기를 믿는 바이다.